

SGC에너지, 3분기 누적 매출 1.23조원에 영업이익 884억원

- ▶ 2021년 가이드스, 매출 1조 8,185억원 달성 무난 예상
- ▶ 3분기 매출 3,939억원, 영업이익 273억원 달성.
- ▶ RPS 의무비율 상향 조정으로 REC 판매 4분기로 이연... 4분기 매출 급증 전망
- ▶ 건설, 솔루션 등 자회사 실적도 가이드스 부합

<2021-10-26> SGC에너지(대표 이복영, 박준영, 안찬규)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조 2,327억원에 영업이익 884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3분기에는 매출 3,939억원과 영업이익 273억원을 달성했다.

발전·에너지부문은 SMP와 증기, 탄소배출권 등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이뤄냈다. 건설부문도 주택과 물류센터 등의 신규수주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이어지고 있다.

3분기 실적에는 REC 수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0월초 신재생에너지법 입법예고에 따라 RPS의무공급비율 조정이 상향 조정되면서, 예정됐던 판매가 4분기로 이연 됐다. 4분기에는 REC 매출이 일시에 인식되고, 난방시즌에 따른 SMP 가격이 Peak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뿐만 아니라, 건설의 성수기를 고려하면, 2021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SGC에너지 박준영 대표는 "10월에 RPS 의무공급비율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어 지난 3분기에는 REC를 판매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SMP, 증기, 탄소배출권 등의 가격 상승과 건설 등 자회사의 성장으로 실적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월 6일 산자부는 RPS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 9% 수준인 의무 비율이 내년에 12.5%로 큰 폭 상향되는 데다 2026년까지 25.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에 따라 이미 REC 현물시장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 대표는 이어 "4분기에는 이연 시킨 REC 매출이 일어나는 데다 SMP, 증기,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에너지 본업에서 실적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평균 SMP 가격은 76.3(원/kwh)원이었으나 2분기 79.1(원/kwh)원, 다시 3분기 92.3(원/kwh)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들어서는 110(원/kwh)원 대 까지 오르고 있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SMP 상승 추이가 발전·에너지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회사 SGC이테크건설의 3분기 매출 2,52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 감소했다. 반면 3분기 영업이익은 13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1.7% 크게 증가했다. 플랜트와 토건사업부문의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이익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SGC솔루션은 온라인 매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구재 유리사업에 대한 특화 작업을 준비하면서 3분기는 이익을 내지 못했다.

SGC에너지 박준영 대표는 "연초 제시한 올해 가이드스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70% 수준을 달성한데다 4분기에는 시장 상황이 훨씬 좋아 가이드스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며 "조만간 100% 바이오매스 발전소인 SGC그린파워의 상업운전도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SGC에너지는 올해 가이드스로 매출 1조8,185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OCI계열사인 SGC에너지는 지난해 (구)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 그리고 (구)군장에너지 등 3사가 합병한 사업형 지주회사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집단에너지사업 선두주자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